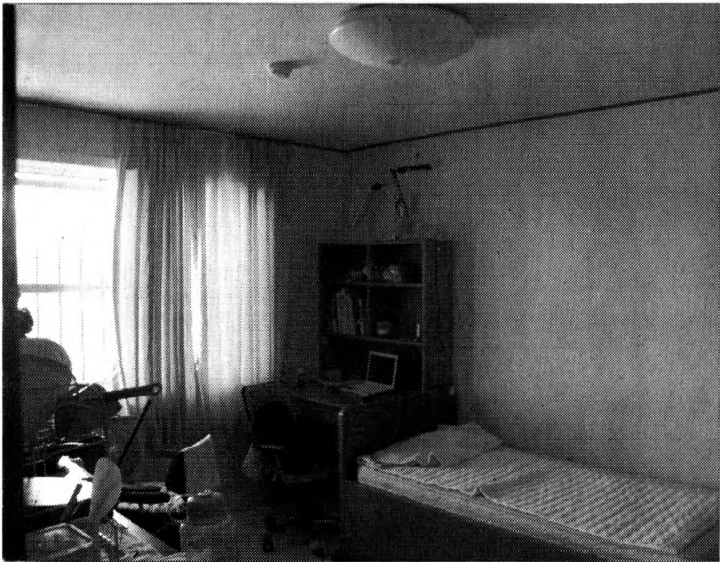


- * 표기 프로그램은 비공개 프로그램입니다.
- 본 대회의 드레스코드는 비즈니스 캐주얼(넥타이를 매지 않은 복장)입니다.

사라캠 학생생활관 속이 흰히 보여 ‘아찔’

냉방시설 없는데도 방문 걸어 잠궜야 ‘안도’



선풍기 하나 없는 사라캠퍼스 생활관 내부 모습.

사라캠퍼스 학생생활관에 살고 있는 학생들이 생활관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불만은 생활관에 더위를 해결할 선풍기조차 없고 생활관 뒤편 등산로에서 내부가 흰히 들여다 보여 사생활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다.

사라캠퍼스 학생생활관에는 학기 중에 100여명이 살고, 여름방학 때에도 40여명이 생활했다. 그러나 생활관 전체에 에어컨은커녕 선풍기도 설치된 곳이 없어 학생들은 더위를 피하기 위해 직접 선풍기를 손수 구입해야 한다.

강미숙(수학교육 1)씨는 “여름에

는 너무 더워서 밤에 잘 때 배근 생활관에 있는 시간이 거의 없다”며 “기숙사에서 편히 쉬고 싶어도 너무 더워서 그냥 에어컨이 있는 곳에서 쉰다”고 말했다. 덧붙여 강씨는 “다른 계절에는 생활관에서 충분히 공부를 할 수 있지만 여름에는 너무 더워서 가끔씩 도서관에서 공부를 한다”고 설명했다.

사라캠 학생생활관은 생활하는 학생 수가 적고 관리비가 감당안 된다는 이유로 그간 에어컨을 설치하기에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사라캠 학생생활관 관계자는 “에어컨을 설치하면 학생들이 에어컨을 켜고 나가는 일이 잦아 관리비를 감당하는 것이 문제였다”며 “그러나 학생들의 여름철 편의를 위해 내년에 에어컨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사라캠퍼스 학생생활관 뒤편에 있는 등산로에서 생활관 내부가 흰히 들여다보여 학생들의 사생활이 침해되고 있다.

이 때문에 학생들은 ‘자기 집’처럼 편안하게 살아야 할 학생생활관

안에서도 자유롭게 행동하지 못하고 있다.

학생생활관에 살고 있는 한 학생은 “등산로에서 생활관 안이 다 보여서 너무 불편하다”며 “1·2층은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창문으로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밤에는 아무리 더워도 항상 문을 꼭 닫고 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사라캠 학생생활관 관계자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조교가 항상 대기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학생생활관 관계자는 “생활관에 사는 학생들이 대부분 여학생인데 학생들에게 위험한 상황이 올 우려가 있어 늦은 시간에는 조교의 허락 하에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밤에 창문으로 입주학생이 아닌 사람이 들어갈 수도 있어 조교가 항상 대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등산로에서 방 내부가 흰히 들여다보이는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아 학생들의 불만은 사그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현 기자

■ 인터뷰/ 제1대 입주학생 자치회 ‘동거동락 同居同樂’

“편안한 기숙사 생활 자치회가 앞장”

-출범식을 마친 소감은

“입주학생 자치회의 시작을 알리는 자리다보니 부담감이 컸다. 하지만 다행히 사람들도 많이 오고, 분위기도 활발하게 이뤄진 것 같다. 또 출범식은 끝났지만 아직 생활관자치위라는 기구에 대해서 잘 모르는 입주학생들이 많은 것 같다. 더욱더 홍보를 열심히 해서 입주학생들에게 인정받는 자치회가 되도록 하겠다.”

-입주학생 자치회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입주학생 자치회는 생활관에 살고 있는 입주학생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기구다. 입주학생들이 생각하는 생활관의 불편한 점이나 건의사항 등을 수렴하고 이런 문제를 행정실과 이야기해 해결하는 일을 한다.

또 기존에 조교를 통해 이뤄지던 점이나 여러 생활관 시설 등에 관리를 우리가 맡게 된다. 조교가 점이나 시설관리 등을 하다가 보면 입주학생들이 부담감을 가지는 경우가 많았다. 이제부터는 같은 학생들이기 때문에 편안하고 친근한 분위기로 이끌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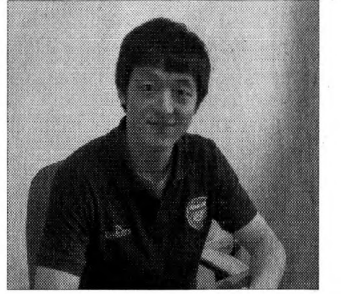
-어떤 자치회를 만들 것인가
“처음 자치회의 슬로건은 과

로움과 즐거움을 함께 하자라는 뜻의 동고동락이었다. 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입주학생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이지 괴로움을 나누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함께 살면서 즐거움을 나누자는 뜻으로 동거동락으로 바꿨다. 이런 슬로건처럼 입주학생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자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중점적으로 진행할 사업은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을 추계행사이다. 이제까지 추계행사는 생활관 행정실에서 진행해 왔다. 하지만 이번부터 추계행사를 우리가 대신해 진행할 예정이다. 입주학생들 모두가 즐겁게 놀 수 있는 장을 만들기 위해서 축제, 영화제, 체육대회 등 다양한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 생활관 게시판이나 설문지 등을 통해 입주학생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추계행사를 진행하겠다.

그 다음으로 택배회사와의 관계를 통해 입주학생들이 생활관에 편하게 들어오고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많은 입주학생들이 이사를 하면서 개별적으로 택배회사를 이용한다. 이렇게 개별적으로 택배회사를 이용할



고은천(해양산업경찰학과 4) 입주학생 자치회장

경우 택배를 맡기기도 어렵고 비용도 비싸다. 이런 불편을 택배회사와의 연계를 통해 쉽게 집을 맡길 수 있고 비용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이사철만 되면 짐을 담을 박스를 구하기가 어려웠다. 이런 문제도 택배회사를 통해 이사용 박스 등을 배치해 해결하도록 하겠다.

또 자치위 사무실에 입주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용품 등을 비치하겠다. 이전까지 탁구나 배드민턴 등을 하기 위해서는 입주학생들 스스로 장비를 가지고 와서 게임을 해야만 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다양한 체육용품 등을 마련해 입주학생들이 무료로 대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

강보배 기자

교수 3명 중 1명은 논문 안 써

미게재 35%로 전국평균 21.4% 웃돌아

제주대 교수 3명 가운데 1명은 1년 간 논문을 한 편도 쓰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서상기 의원(한나라당)이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대학 전임교원의 학술지 논문게재 실적 현황’을 발표했다.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08년 기준 우리대학 전임교원 579명 가운데 35.1%에 해당하는 203명이 전문학술지나 국내 일반학술지에 논문을 1편도 쓰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11개 국립대의 평균 미게재 실적 21.4%보다 웃도는 것이다.

특히 전문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한 건수는 교수 1인당 0.58건으로 전국 국립대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

했다.

뿐만 아니라 국내일반학술지에 논문을 쓰지 않은 교수 비율도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전문학술지에 논문을 실지 않은 교수는 45.9%로 266명이고, 국내 일반학술지에 논문을 쓰지 않은 교수는 39.6%인 299명으로 나타났다.

전문학술지와 국내 일반 학술지 논문 미게재 비율은 전국 평균 각각 28.3%, 24.8%이었다.

이에 대해 교무과 관계자는 “이번 통계자료는 신입교수와 이미 퇴직한 교수도 포함돼 있어 약간의 오차가 있다”면서도 “이번 사태에 대한 해결방안을 의논해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 말했다.

이정우 기자



지난 9일 학생들이 88서울올림픽 제22주년 기념 성화봉송로 자전거 도일주에 나서고 있다.

88올림픽 22주년 성화봉송로 달린다

제주대 학생들이 지난 9일부터 이틀간 ‘88서울올림픽 제22주년 기념 성화봉송로 자전거 도일주’에 나섰다.

이번 행사는 88올림픽 성화 첫 기착지로서의 자긍심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장을 마련하자는 취지로 열렸다.

행사에는 1학년 50명, 2학년 46명, 3학년 42명, 4학년 51명 등 총 189명의 학생들이 참여해 제주도를 일주했다.

오는 17일까지 2011학년도 수시모집

접수는 유웨이를 통해... 합격자 12월 10일 발표

제주대가 2011학년도 신입생 수시 모집 원서를 오는 17일 오후 5시까지 인터넷으로 받는다.

접수는 대입업체인 유웨이(www.uway.com)를 통해 받을 예정이며 첨부서류는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번 수시모집은 △일반전형 327명 △취업자 7명 △예체능특기자 46명 △학교장 추천자 101명 △사회적 배려 대상자 54명 △농어촌 학생 78명 △전문계고 출신자 81명 △기회균형 선발 49명 △특수교육 대상자 59명으로 총 802명이다.

이번 수시모집에서는 간호대학이 신설돼 간호학과가 의과대학에서

분리되면서 60명에서 70명으로 10명 늘었다. 이처럼 간호학과 증원에 따라 10개 학과에서 각각 1명씩 감소했다.

최저학력기준은 일반학생의 경우 인문대학·법정대학·경상대학(야간 모집단위 제외)은 2개 이상의 영역 등급이 5등급 이내이며 사범 △예체능특기자 46명 △학교장 추천자 101명 △사회적 배려 대상자 54명 △농어촌 학생 78명 △전문계고 출신자 81명 △기회균형 선발 49명 △특수교육 대상자 59명으로 총 802명이다.

이날 수시모집에서는 간호대학이 신설돼 간호학과가 의과대학에서

또 그동안 일부 모집단위에만 적용했던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예체능전형과 취업자전형을 제외한 전체 모집단위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생명자원대학·해양과학대학·자연과학대학·공과대학에 최저등급이 적용된다. 이들 단과대의 경우 언어, 수리, 외국어, 탐구영역 중 2개 이상의 영역등급이 6등급 이내이다.

첨부서류 제출 대상자는 10월 1일 오후 5시까지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합격자 발표는 12월 10일 입학안내 홈페이지를 통해 이뤄진다.

정승우 기자

The 3rd Essay Contest

외국어교육원에서는 제주대학교 재학생들의 외국어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고 글쓰기 능력 향상을 위한 제3회 **에세이 경시대회**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학부 재학생들의 많은 참가 바랍니다.

1. 대회일시 : 2010. 9. 30(목) 18:00~20:00

2. 대회장소 : 제주대학교 외국어교육원 강의를실

3. 응시대상 : 제주대학교 학부 재학생

(단, 외국인유학생인 경우 모국어가 아닌 언어에 지원 가능)

4. 접수기간 : 2010. 9. 13(월) ~ 9. 28(화)

5. 실시언어 : 영어, 일어, 중국어, 독일어(문제유형은 홈페이지 참고)

** 언어별 접수인원이 10명 미만인 경우, 해당언어 시험은 취소됩니다.

6. 접 수 처 : 외국어교육원 3층 접수처

7. 경시대회 수상 상금

1등 최우수상(각 언어별) 400,000원

2등 우수상(각 언어별) 200,000원

(기수상자는 상위 수상시에만 시상함)

8. 입상자 발표 : 2010. 10. 8(금) 외국어교육원 홈페이지에 게시

9. 주 제 : 시험 당일 제시

10. 기 타 : 신분증 지참

11. 문의처 : 외국어교육원 행정실 ☎ 754-2291, 2292

제주대학교 외국어교육원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엉망... 해법 없나?

단과대 매점 등 분리수거대 확대 설치

쓰레기 분리수거가 잘 되지 않아 캠퍼스가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음식물 쓰레기를 일반 쓰레기통이나 세면대, 변기, 하수구에 버리고 있어 문제다. 대학 구성원들이 일반 쓰레기통에 마구잡이로 버린 쓰레기는 학교를 청소하는 용역업체 직원들이 일일이 분리하고 있다.

한 청소용역업체 직원은 "라면찌 깨기와 닭뼈, 과일껍질 등이 종이와 뒤엉켜 있는 것을 일일이 분리한다"며 "여름에는 곰팡이까지 피어서 마스크를 끼고 쓰레기를 치운다"고 토로했다.

이와 함께 라면찌꺼기를 세면대와 변기에 버리는 사람도 많다. 용역업체 직원들은 음식물로 막힌 변기를 뚫고 라면 기름때를 닦기 위해 전전긍긍 하고 있다.

그러나 구성원들은 음식물 쓰레기를 마땅히 버릴 곳이 없어서 화장실에 버리는 것이라고 한다. 음식물 쓰레기통은 현재 해안대·경상대 매점과 학생회관에만 비치돼 있다.

나머지 단과대학과 한라홀·아라

홀에서 라면 등을 먹은 학생들은 남은 음식을 처리할 곳이 없는 것이다.

공과대학의 한 학생은 "음식물 쓰레기통이 없어서 과일이나 치킨을 먹고 처리하기 곤란했던 적이 있다"며 "분리수거를 하고 싶어도 어쩔 수 없이 일반 쓰레기통이나 화장실을 택하게 된다"고 말했다.

학생복지과에 따르면 음식물 쓰레기통은 원래 캠퍼스 건물 곳곳에 비치돼 있었지만 심한 악취로 모두 철거됐다고 한다.

김기석 계장은 "냄새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통이 철거됐었지만 분리수거 문제가 심각한 만큼 각 단과대 매점에 비치하도록 하겠다"며 "냄새가 나지 않도록 각 매점에서 관리할 잘 하도록 공문을 보내고 아라홀·한라홀에는 실외에 음식물 쓰레기통을 놓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음식물 쓰레기통이 마련돼도 쓰레기 분리수거가 제대로 될지는 미지수다. 음식물 쓰레기통이 버젓이 놓여있는 학생회관에서 음



대학구성원들이 쓰레기통에 음식물쓰레기와 캔, 종이류 등을 분리수거하지 않아 청소용역업체 직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식물쓰레기 분리수거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기 때문이다.

단과대를 청소하는 한 용역업체 직원은 "학생회관처럼 단과대마다 음식물쓰레기통이 생긴다고 해도 제대로 분리수거를 해줄지 의문"이라며 "뻔히 음식물 쓰레기통이 있는데도 마구잡이로 버리는 학생들

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승용 동아리연합회장은 "청소하시는 분들이 고생하시는 만큼 학생들의 의식개선이 필요하다"며 "특히 학생회 선거철이 되면 문제가 심각해 동아리연합회 차원에서 주의를 주겠다"고 말했다.

고용희 기자

대동풀이 오는 28일부터 이틀간 열려

사라캠퍼스 동아리도 함께하는 화합의 장 마련

대동풀이 동아리연합회(회장 정승용) 주최로 오는 28일부터 아라캠퍼스 곳곳에서 이틀간 열린다.

이번 대동풀이는 동아리 문화 활동의 중요성을 알리고 개별화 되어 있던 동아리들이 이번 축제를 통해 하나가 되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준비됐다.

이번 축제는 처음으로 사라캠퍼스와 함께해 51개의 중앙동아리와 18개의 사라캠퍼스 동아리, 30개의 단과대학 동아리 등 총 99개의 동아리가 참여한다. 또한 제주대학교 학생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장소는 학생회관 1.2층, 법정대 중강당, 한라터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첫날인 28일에는 메인무대(한라터 축구장 자리에 설치될 무대)에서 오후 5시부터 개막식이 열린다.

식전에는 개막식의 열기를 고취시키기 위해 게임 이벤트와 공연을 한다.

이날 장기자랑도 진행하는데 오후 5시 반부터 시작된다. 장기자랑은 동아리인 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이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할 학생은 오는 24일까지 동아리연합회로 신청하면 된다.

대동풀이 마지막 날인 29일에는 오전 12시부터 미니 경기를 통해 캠퍼스 내의 숨은 고수를 찾는 '캠퍼스 ACE'가 진행된다. 종목은 팔씨름, 림보, 미니탁구, 볼링 등이며 오는 24일까지 동아리연합회에서 신청을 받는다.

또 오후 2시부터는 메인무대에서 '조선 골든벨'이 열린다. 준비된 30문제로 진행되며 중간에 이벤트를 통해 문화상품권이 지급될 예정

이다.

이날 오후 5시부터는 음악방송을 한다. 언론미디어센터 교육방송국과 협력해 우리 학교 전체에 아우르는 음악방송을 통해, 동아리 및 제주도 전역에서 문화 활동에 관한 내용들을 소개한다.

이와 함께 오후 6시 30분부터는 동아리 공연무대가 준비되어있다. 동아리 공연에서는 동아리 7개팀과 외부에서 초청된 음악 아티스트 2개팀이 공연을 한다.

대동풀이가 진행되는 행사기간 동안에는 학생회관 1층에서 5개의 전시창작분과가 연합으로 전시를 펼칠 예정이다.

폐막식은 이날 오후 8시 15분부터 폐막 점등식 이벤트와 회장단 인사로 마무리한다.

이수진 기자

고영철 법정대 학장

제16대 학장협의회장 선출



고영철 (언론홍보학과) 법정대학 학장이 지난날 30일 열린 학장협의회 임시총회에서 제16대 학장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됐다.

이날 임시총회에서는 우리대학 12명의 학장 중 8명이 참석한 가운데 결산보고를 시작으로 학장협의회 역할을 비롯해 학장의 권한 및 업무 등 다양한 사항들이 논의됐다.

고영철 회장은 "학장협의회회의 위상을 새롭게 정립하겠다"면서 "분부와 단과대학간의 소통과 조율을 통해 견제와 협력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보배 기자

공학교육혁신센터 주최 'CEO에게 듣는다'

"내 자신과의 약속을 지켜라"

"대학 시절, 거창한 꿈은 아니더라도 자신만의 꿈을 가지고 있어야죠."

김중조 에드워드코리아 회장이 '대학 시절에서 꿈어야 할 나만의 꿈'을 주제로 지난 10일 공과대학 4호관에서 공학교육혁신센터가 개최한 'CEO에게 듣는다' 강좌에서 한 말이다.

김 회장은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꿈을 가지게 하는 것"이라며 "대학생이라면 큰 꿈은 아니더라도 자신만의 꿈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 회장은 "꿈만 가지고 있다고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꿈을 구체화시켜 목표를 만들고 실천으로 옮겨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인생을 설계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에 맞는 설계를 하는 것임을 강조했다.

김 회장은 "같은 부모 밑에서 자란 형제, 자매들도 각자 다른 개성과 재능을 가진다"며 "인생을 설계하거나 꿈을 정할 때 자신의 재능과 개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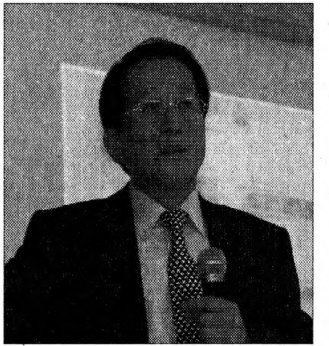
그는 자신이 이 자리에 오르게 된 이유를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이라고 말한

다. 김 회장은 "대학 시절 내 꿈은 약속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었다"며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보니 현재 이 자리에 오를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많은 사람들이 약속시간을 정하면 그 시간에 맞춰 가다보니 늦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약속시간보다 일찍 나와서 사람을 기다린다고 해서 손해를 보는 일은 없다"며 약속의 중요성을 다시금 강조했다.

김 회장은 또 "성공이라는 것은 자신의 삶의 끝에서만 알 수 있다"며 "현재 자신이 많은 부와 명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오만해지거나 방심하면 언제든지 실패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자신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인생은 크게 세 번의 삶으로 나뉘어 있다고 말한다. 그가 말하는 첫번째 삶은 아기 때부터 직장을 가지기 전까지의 삶으로 자신을 만들어가는 삶이다. 두번째 삶은 직장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해 나가는 때로 첫번째 삶을 통해 키워온 자신의 능력을 발휘해 사회 발전에 힘을 쓰는 삶이다. 마지막으로 세



김중조 에드워드코리아 회장

번째 삶은 직장생활에서 서서히 벗어나 자신의 삶을 정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조언해주는 삶이다. 그는 자신의 세번째 삶의 시작을 이 CEO특강과 함께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 강좌는 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현장 정보를 CEO가 직접 들려줘 학생들에게 실무 전공 지식과 비즈니스 마인드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하고자 편성됐다.

강의는 매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이뤄지며, 수강대상은 공과대학 120여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이뤄지지만 일반인이나 재학생 모두 청강할 수 있다.

강보배 기자

아라 아라

○...사라캠퍼스 체육관은 찜질방 사라캠퍼스 체육관이 찜질방으로 용도를 바꿨다고, 농구 하러간 학생들도 '신개념 찜질방 체육관'에만 들어가면 얼마 되지 않아 혁혁대며 진땀을 빼고 나온다고.

알고 보니 체육관에 에어컨이 한 대도 없어 내부온도가 찜질방을 방불케 올라갔던 것.

학생들은 '더운 여름날에는 체육관에 가만히 있어도 금방 땀이 주르르 나서 찜질방에 온 것 같은 착각이 든다'며 불평.

쾌적한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빠른 조치가 필요할 듯.

캠퍼스에서 침 뱉지 마세요!

○...대학건물 B, "내 얼굴에 침 뱉지 마라!" 대학건물들이 "내 얼굴에 침 뱉지 마라!"며 농성을 벌이고 있다고.

알고 보니 대학 구성원들이 건물 문 밖에 내놓아 우산을 훔쳐 쓰고 달아나는 학생들이 늘어난 것. 학생들은 "우산꽂이가 식당 안에 있으면 밥을 먹으며 우산도 훔치기 있다 볼 수 있는데 식당 문 밖에 있어 불안하다"고 불평.

잠깐 비를 피하기 위해 남의 우산을 훔치는 것은 반성이 필요할 듯. 이왕이면 우산꽂이도 식당 안에 놓아서 학생들의 불안한 마음을 덜어줬으면.

제30회 백록문학상 및 백록학술상 현상 공모

언론미디어센터에서 제주대신문 창간 56주년을 맞이하여 제30회 백록문학상 및 백록학술상을 다음과 같이 현상 공모하고자 합니다.

제30회 백록문학상 공모

1. 응 모 자 격: 제주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부생
2. 응 모 분 야: 시(1인 5편 이상) 또는 소설(1인 1편)
3. 접수마감일시: 2010년 12월 3일(금) 18:00까지
4. 접 수 장 소: 언론미디어센터 행정실 (취업전략본부 3층)
*백록문학상 응모시 원본 파일을 담은 CD(DVD)와 출력물을 동시에 제출
5. 발 표: 제주대신문 847호(2011년 1월 5일 발행 예정)
6. 시 상 내 역: 각 부문 당선작(50만원), 가작(30만원)
*단, 작품 수 · 작품의 수준 등 제반 여건에 따라 시상내역은 변동 가능 함

제30회 백록학술상 공모

1. 응 모 자 격: 제주대학교 재학생(대학원 박사과정은 제외)
2. 응 모 분 야: 일반논문 A4용지 10매~30매 내외
(인문, 사회, 자연과학, 공학분야: 이미 발표된 논문이나 학위논문 제외)로 작성하고, 논문출력물과 논문파일은 CD로 동시 제출, 제출된 원고는 반환되지 않음.
3. 시 상: 학부생/대학원생
*수상인원은 논문 수준에 따라 변동 가능
당선작 각 1편: 총장상 및 상금 50만원, 가작 2편: 총장상 및 30만원
4. 심사 및 시상: 심사위원회에서 추후 결정
5. 접 수 마 감: 2010년 12월 6일(월) 18:00까지
6. 당 선 작 발 표: 2011년 신년호

돌대박

공짜 선풍기

파전, 계란찜, 갈비찜

고기만 드셔도

생맥주

공 짜!

삼겹살
가브리살
항정살

돌판갈비찜
돌판닭찜

시청

아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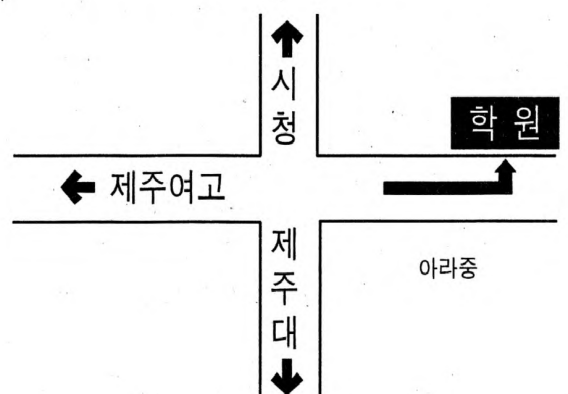
돌대박

제주시 이도2동 1769-1
T. 759-2382

운전면허

제주대학교 발전 후원 업체 한라자동차 운전 전문 학원

- 매주 운전면허 기능시험 자체 실시
- 셔틀버스 운행: 제주대 ↔ 학원 (08:30~17:00)
매시 30분 제주대 정문앞 출발
- 주말교육 가능 ○ 필기시험 교재 배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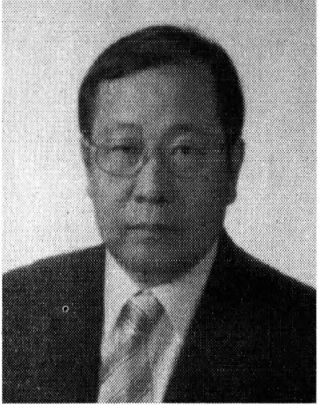
제주시 아라2동 1320 (제주여고 입구 동쪽)
전화: 755-9900

제주여고 입구 건너편(다리) ↔
학원 셔틀버스 운행

교수회장 입후보자 소견서

◇기호 1번 김두경(경영정보학과) 후보

△58세 △서강대 전자공학과 △중앙대 공학석·박사 △제주대 평의원, 제주대 경영대학원 운영위원회 위원



김두경
경영정보학과 교수

존경하는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교수협의회의 출범에 즈음하여 교수회장 후보자로 나온, 경상대학 경영정보학과 김두경입니다.

저는 1986년에 우리 대학교에 부임한 이래 학자로서, 교육자로서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나름대로 고민하면서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세월을 돌아보니 별로 내세를 위한 뚜렷한 성과가 없어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감히 교수회장직에 출마하게 된 것은 저와 여러분의 평생직장인 제주대학교가 큰 위기에 처해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급속도로 변하는 요즘과 같은 시대에 인재를 양성해 내는 대학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고, 그런 면에서 교수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교수는 연구와 강의 그리고 사회봉사라는 법적 책무를 감당하는 직책이고, 대학정책은 이러한 교수들의 연구와 강의, 사회봉사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수립되고 이행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대학의 경쟁력, 국가의 경쟁력,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첩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점차 가라앉고 있는 제주대학교의 위상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교수회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교수회장이 된다면 다음과 같은 일들을 추진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교육·연구에 관한 부분입니다.

교수에게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은 교육이고 그 다음이 연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연구가 너무도 강조되다 보니 본의 아니게 교육이 부실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물론 교수로서 교육도 열심히 하여야 하고 연구도 열심히 해야 하지만 요즘의 교내 상황은 절

점 연구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교수들이 과제 수행 시 허비하게 되는 많은 연구관련 행정에 대한 내용을 줄일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해결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복지환경에 관한 부분입니다.

교수님들이 건강하여야 교육과 연구를 열심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력단련을 할 장소가 적당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이 있어서 교수들의 체력단련을 위한 운동시설의 설치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들의 단합과 친목을 도모하는 동호회(골프, 오름)에 대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세 번째는 교수연구업적평가에 관한 부분입니다.

교수 평가에 있어서 현재에는 단과대학이나 전공의 특성이 거의 고려되고 있지 않지만 이후에는 각 단과대학 각 전공의 특성을 고려한 평가 체계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사라 캠퍼스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여 사라 캠퍼스 교수님들께 실제로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잘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대내외적으로,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슬기롭게 극복한 우리에게 이번을 기회로 세계로 도약할 수 있도록 모두가 역량과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대학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없이는 국가의 미래도, 제주지역의 발전도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런 막중한 사명을 가진 대학의 교수회는 교수회장 혼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모두 합심해서 교수회의 위상을 새롭게 정립해야 합니다.

교수회 발전이 대학의 발전일 것이고, 대학의 발전이 곧 지역의 발전일 것입니다. 여러 교수님들께서 저를 교수회장으로 뽑아주신다면, 최선을 다해 대학발전과 교수님들의 권익옹호에 진력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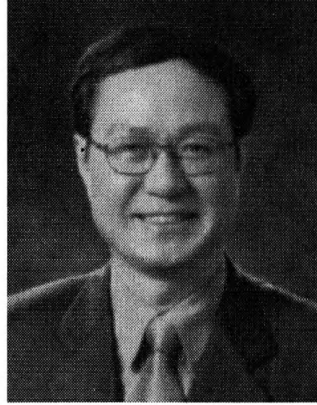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저는 자리에 연연하는 사람보다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하는 교수협의회 회장이 되겠으며, 교수협의회 회장 본연의 업무인 교수님들의 복지 향상과 교권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교수님들의 권익옹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 봉사할 것임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호 2번 양길현(윤리교육과) 후보

△54세 △서울대 정치학과 △서강대 정치학석사, 서울대 정치학 박사 △한국지방정치학회 회장, 제주도지역혁신협의회 위원



양길현
윤리교육과 교수

존경하는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사립대학 윤리교육과 양길현 교수입니다.

제4대 교수회장에 출마하면서 겸허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제주대학교의 구성원으로 지내온 지난 12년의 시간은 제 삶에서 큰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항상 교수님들의 진지한 연구 활동과 성실한 강의 업적을 보고 들으면서 같은 공동체 일원으로서 매사에 부듯한 감동을 느끼고 있으며 우리 대학교의 한 구성원으로서 항상 자부심을 갖고 있음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제주대학교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서 우리 학교가 그 어느 대학 못지않게 창의와 민주가 살아 숨 쉬는 대학이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단순히 소망만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노력이나마 실제로 학교에 기여하는 한 일원이 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교수들의 공동체인 교수회를 통해 조금이라도 우리 학교에 기여할 수 있다면, 그것도 제가 몸담고 있는 제주대학교에 대한 기여의 한 방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제주대의 위상과 역할을 어떻게 하면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킬 것인지, 서로 머리 맞대고 또 발로 뛰고 하는 일에 저도 벅들 하나 쌓는 심정으로 교수회장에 감히 나서게 되었습니다.

제가 감히 교수회 대표를 맡겠다고 나선 것은, 무엇보다도 교수회 대표로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하는 '민주성'에서 제 50평생의 삶이 나름대로 유용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이러한 민주적 자세야말로 대학본부와 학교의 발전을 위해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하다가도 혹 지나치거나 혹은 부족해 보일 때, 이를 견제하고 또는 배우고 하는 데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견제와 협력이라는 이중주의 가능성은 바로 속의민주주의를 통한 다층적 대화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이러한 민주적 소통에 앞장서고자 합니다. 당연히 교수회가 중점을 두어야 할 예·결산 등 대학정책에 대한 심의 기능은 물론이고 대학본부가 소홀히 한다고 생각되는 미래비전 찾기에서도 각종 위원회를 통해 아래로부터의 중의력을 모으는데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그리고 학장 선임 문제, 학과 및 연구소의 자율성 강화 등과 같이 단과대학과 학부·학과와의 미래지향적 역량 강화를 위한 공론장 마련에도 시간을 많이 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교수님들의 만족도를 어떻게 하면 증대시킬 것인가의 사업 구성과 지원책 마련에 심혈을 기울일 것입니다. 교수님들의 역량을 증대시키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 지역사회에 교수님들의 역량을 세일즈하는 데도 적극 나서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교수님, 저는 평소 저의 삶에서 주류보다는 비주류, 강자보다는 약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를 향상하는데 'JUMP'의 편집자와 독자들이 함께 읽을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제주대학교 언론미디어센터

교수님들의 권익 증진 차원에서 이에 항

의를 할 것이고, 대학본부가 교직원들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면 이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데 앞장서고자 합니다. 조만간 우리 대학교도 직면하게 되리라 예상되는 법인화 문제에 대해 교수님들의 중의력을 모으고 교수님들의 권익을 우선시하면서 우리 대학교의 미래발전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해법 찾기에 적극 나설 것입니다. 그리고 교수인사와 연구 지원 및 업적 평가 등에서 교수님들이 직면하게 되는 신분상의 불이익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할 것입니다. 당연히 이러한 일을 함에 있어서 교수회 조직 구성에서의 일신뿐만 아니라 교수회 사업에 대한 사후평가를 비롯하여 재정운용의 투명성 강화에서도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출마하게 되는 제주대학교 교수회는 네 번째의 시작입니다. 그간 한석지, 강민수, 고경표 세분의 회장님 덕분에 교수회가 점차 기틀이 잡혀가고 있다고 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교수회도 이제는 이러한 기틀을 발판 삼아 한 단계 더 높은 위상을 갖추고 보다 전향적인 역할을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서 저는 그동안 살아오면서 제가 정치학도로서 갖추어온 균형감각과 다원적 시각 그리고 제가 연구소 활동과 학회 및 사회단체 활동을 하면서 확보해 온 폭넓은 대인관계를 토대로 하여 교수회가 우리 대학교와 제주 지역사회를 위한 지혜의 창고이자 대안 제시의 장으로 역할하도록 하는 데 특별한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제가 평화연구소장으로 일할 때 연구소 발전기금 6천만 원을 모았으며, 또 올 1년 동안 윤리교육과 학과장으로서 저의 과 발전기금 목표인 6천만 원을 모금하면서 나름대로 우리 학교의 부분별 발전에 한 축에도 열심히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대학발전기금 조성과 글로벌 제주대의 역할 강화, 그리고 제주도 내의 학문공동체의 성장과 활용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제반 정책방안에 대해서 항상 교수님들의 의견을 구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제주대학교 교수회는 구성은 교수들로 이뤄지지만, 그 목표와 범위는 단순히 교수사회에 한정하지 않고 불철주야 학교의 사무를 관장하면서 맡았어 심부름하는 데 여념이 없는 행정직원들에게도 항상 눈과 귀를 열어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우리 대학교의 존재의의 가운데 하나인 재학생들의 역량 강화와 취업 확대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지를 놓고 꾸준히 대학본부와 손발을 맞춰 나갈 것입니다. 이런 모든 사업 추진의 기본은 '제주대학교 2030'(가칭)이라는 장기미래발전 목표를 정하고 이를 추진할 방향을 마련하는 데서 시작한다고 보기에, 이와 같은 미래비전 찾기와 대안 마련에 일정정도로 접근하고자 합니다. 우리 대학 시간강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조사연구와 공론장 마련은 물론이고 퇴임교수님들의 역량 지원과 활용을 위한 지혜 모으기와 제주사회의 네트워크 강화에도 적극 나설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교수회의 위상과 역할이 단순히 현직 교수들의 권익증진에만 있지 않음을 구체적인 일을 통해 보여줌으로써 교수회의 위상을 한 단계 높여 나가고자 합니다.

이 짧은 지면에서 제가 상세하게 구체적인 사업과 전략을 다 밝히기는 어렵게 사임합니다. 그렇지만 다원성과 창의, 소통과 조율, 견제와 협력, 약자 옹호와 네트워크 확대를 통해 교수회의 위상을 높이고 역할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수님들과의 지혜 모으기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저로서는, 바로 그러한 일에 앞장서는 겸허한 심부름꾼이 될 것을 약속하면서 다시 한 번 온 힘을 다해 열심히 일하겠다는 의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늘 연구와 교수로 노고한 강오신 교수님께 늘 가을 학기에 더욱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모두 순조롭게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호 3번 이상봉(회계학과) 후보

△57세 △제주대 경영학과 △고려대 경영학석사, 동국대 경영학 박사 △제주대 경상대학장, 한국회계정보학회부회장



이상봉
회계학과 교수

안녕하십니까? 저는 금번 교수회장에 입후보한 경상대학 회계학과 이상봉 교수입니다. 6년 전 교수회가 평의회와 통합 출범된 후 교수회관련 임원들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교수회가 아직 많은 교수님들의 관심에서 멀어져 있다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저는 그동안 학장직과 각종 위원회활동을 하면서 교수회의 위상이나 기능이 제 역할을 다 할 때 궁극적으로 대학의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소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 활동을 하면서 안타깝게 느껴왔던 것은 대학행정부서가 자발적으로 교수님의 복지문제와 교육·연구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어떠한 제안도 먼저 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는 것입니다. 대학 발전을 위하여 불공평하고 비효율적인 제도 개선이나 교육·연구 환경개선 및 교수복지 문제에는 교수 스스로가 문제를 제기하고 강력하게 요구할 때에만 문제가 해결되곤 했습니다.

그 동안 학교당국이 외형적인 발전에 치중해 왔다면 이제는 교수님들의 복지증진과 권익신장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봅니다. 이는 주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힘을 모을 때만이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용감하게 큰 목소리를 내는 소수의 의견보다는 침묵하는 다수의 의견이 한데 모아질 때 대학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교수회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용감히 나섰습니다.

저는 재직 기간 동안 평의회를 비롯하여 많은 위원회 활동과 내부감사업무 그리고 경상대학장직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제도개선과 교수님들의 복지 및 교육·연구여건개선을 위하여 크고 작은 일들을 해왔습니다. 특히, 기성회계 예산편성·심의에 관여하면서 교수님들을 위한 기성회계성과금(현, 교재개발연구비) 기반 마련, 단과대학의 열악한 기성회계예산을 해소하기 위한 기성경비 다. 저는 학교 예산에서 교수님들의 복지향상과 교육·연구여건개선을 위한 방안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저에게 일을 맡겨 주십시오. 분명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회계학을 전공하였습니다. 대학의 복잡한 회계 및 예산구조를 이해하고 개선의 여지를 찾아낼 수 있는 적임자입니다. 저는 학교 예산에서 교수님들의 복지향상과 교육·연구여건개선을 위한 방안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저에게 일을 맡겨 주십시오. 분명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교수회장이 되면 "교수회장은 곧 교수노조위원장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다음과 같은 일에 전력투구하겠습니다.

1. 교수님들의 복지 향상과 교육·연구 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 총장의 선거공약 가운데 특히 교수복지 부문에 대한 약속이 이행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 이를 위해 교수회에 "공약실천평가위원회"를 두고 매년 부분별 선거공약이행지표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이후 총장선거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교수회장의 공약이행정도도 발표하겠습니다.
2. 교수회가 활성화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교수회의 활동 및 예산 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교수님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공개토론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수체육대회는 물론 1박2일 교수연수회의를 개최하여 교수님들의 친목도모와 재충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여교수회가 공식적으로 교수회와 융합될 수 있도록 부회장 직제를 개정하고, 분리되어 있는 예산을 통합하여 운영하겠습니다.

○ 평의회 위원들과 함께 각종 분과위원회조직을 구성하고 활성화하여 교수회와 평의위원회가 융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 법안화반대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법안화로 인해 교직원의 신분변동, 학생등록금의 사립대 수준으로 인상 그리고 재정회계법으로 인한 대학의 자율성 침해 등의 문제가 예상됩니다.

특히, 재정자립이 어렵고 규모가 작은 우리와 같은 대학의 법안화는 절대 반대합니다.

4. 재정운영시스템과 성과평가기준 등 제도개선을 하겠습니다.

○ 예산편성, 심의, 결산감사 등 낙후된 예산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 성과평가기준을 개선하여 교수님들이 연구와 강의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평의회 운영규정, 명예교수운영제도 등 기간에 불만스럽게 논의되던 제도를 대학본부와 적극적인 토론을 통하여 과감하게 개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수님 여러분!

교수회는 야당도 아니고, 더구나 교수회장은 군림하는 자리도 아닙니다. 대학 본부가 잘하고 있으면 반수를 칠 수 있어 아깝고 잘못 가고 있으면 비판과 견제를 통해 대학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교수회는 교수님들의 복지향상과 권익옹호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교수님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이제 다음 교수회장은 대학행정에 대한 폭 넓은 경험을 갖고 있으면서 교수회에 대한 열정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만약 저에게 교수회를 위해서 일할 기회를 주신다면 많이 듣고, 많이 보고, 많은 대화와 토론의 기회를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의견수렴이 이루어진 사안에 대해서는 어떠한 장애가 있더라도 열과 성을 다해서 이루어 내겠습니다.

누군가가 해야 될 일이 있으면 제가 먼저 앞장서고, 언젠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오늘 당장 하겠다는 각오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번에 교수님들의 심부름꾼으로 저를 선택해 주신다면 교수님들을 위하여 그리고 교수님들의 대변자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는 29일 후보자 소견 발표 이어 투표 실시

1차 투표에서 과반수 이상 득표자 없으면

결선투표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실시

인터넷미디어 'JUMP' 개통

(<http://news.jejunu.ac.kr>)



또 영자신문인 제주위클리 and 인터넷신문 제주소리 등에 실리는 기사와 사진 등도 함께 동시서비스하고 있습니다. 'JUMP'는 앞으로 컴퓨터로 판시스템(CTS)과 연계시켜 신문이 나오기 전에 기사를 받아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뉴스, TV, English News 등 매체별 메뉴 외에 취업, 해외연수 등 학생들의 관심이 많은 주제별 메뉴도 편성, 다양한 정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 발전기금 메뉴를 신설, 발전기금 주요 기부자 소개, 소액기부자 발굴, 참여자 혜택 등의 소식과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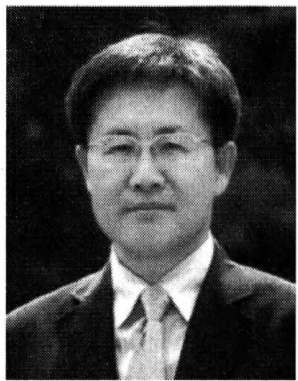
'JUMP'의 모든 메뉴에는 독자투고 단추가 들어 있습니다. 소감이나 의견 또는 제보할 내용을 적어 전송하면 'JUMP'의 편집자와 독자들이 함께 읽을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JUMP'는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제주대신문, 영자신문 The Islander, 교육방송국 등의 기사, 사진, 동영상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주대학교 언론미디어센터

영어! 영어! 영어!

영어학습 포기 말고 '바로 지금부터'



이기석 영어영문학과 교수
외국어교육원장

이 글의 제목은 그냥 영어! 영어! 영어! 이다. 영어라는 단어 뒤에 특별히 무슨 말을 붙이지 않더라도 뭘 말하려는 지에 대해 대충 짐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개인적으로는 영어라는 단어 뒤에 '공부'라는 말만은 붙이고 싶지가 않다. 영어를 전공하는 교수가 영어공부라는 복합어를 싫어한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하겠지만, 사실이 그렇다. 우리가 영어에 자신이 없고 영어표현 능력이 부족한 것은 영어공부를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어쩌면 영어공부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역설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영어는 공부가 아니다

영어 학습과 관련해서 볼 때에 공부라는 말은 듣기와 말하기 보다는 역시 읽기와 쓰기 쪽에 더 연관이 있어 보인다. 즉 영어공부라는 말 자체에서 우리는 구어영어나 보다는 문어영어를 연상하기가 쉽고, 또 실제로도 그렇다. 그러나 영어라는 언어의 학습이 기본적으로 다른 학과목과 마찬가지로 '공부'에 초점을 두는 학교교육(초등교육부터 고등교육에 이르기까지)을 주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보면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게다가 이 나라의 입시제도에서 차지하는 영어 과목의 비중으로 보더라도 영어가 '공부'의 대상일 수밖에 없고 또 '점수'의 대상일 수밖에 없으니 우리의 영어는 구조적으로 말하고 듣는 영어와는 거리가 멀다.

이 뿐만 아니라 언어학습과 관련된 한국사회의 전통적인 분위기도 읽기·쓰기 중심의 문어 학습이 주축을 이룰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다고 본다. 이는 일본의 경우도 거의 비슷한 현상으로서 그 옛날 한문을 통한 중국의 고전학습이 전적으로 읽기와 쓰기가 중심이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어디 조선시대의 과거시험에서 듣기와 말하기 중심의 구어능력의 평가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한 세대 전 우리의 선조들까지만 하더라도 어떤 시절 서당에 다니면서 배웠다는 천자문만 보더라도 전적으로 문어중심의 공부였음에 틀림없다. 대대로 내려오는 이 문어학습의 전통은 그 언어의 대상이 한 문이 아니라 영어라 할지라도 오늘날까지 면면히 내려오고 있음에 놀라울 뿐이다.

물론 언어라고 하면 이는 문어와 구어를 모두 포함하지만 여러 가지 관점으로 볼 때 구어가 먼저이어야 함에는 두말할 나위가 없다. 세계에 약 6000여 개의 언어가 있지만 문자가 있는 언어는 200여 개 정도이고 나머지는 말만 있을 뿐 문자는 없다. 따라서 문자 없이 구어만 존재하는 언어가 부지기수인 반면에 구어 없는 문어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또한 언어의 기능을 의사소통이라 할 때에 이는 문어와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전적으로 말하기·듣기의 구어가 담당해야 할 몫이 큰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구어중심의 영어를 언급하자면 문어중심의 학습인 '공부'에서 좀 벗어나야 할지도 모른다. 우스갯소리로 누가 어학연수 차 미국에 간다고 하면 도서관 속에서 영어공부만 열심히 하고 오라고 하지 않고, 대신에 미국 친구들과 많이 접촉하고 실컷 놀다 오라고 하는 편이 더 현실적인 주문이 아닐까 한다.

오래 전 무슨 책에서인가 읽었던 언어 학습에 대한 다음의 영문이 생각난다.

The most important thing of all in learning a language is to have

patience. If you keep working steadily, day after day, constantly practicing the language, and using it at every opportunity, then you will be a good speaker of the language.

이 짧은 글 속에 언어학습, 즉 여기서 말하는 영어학습의 핵심요체가 다 들어 있음을 본다. 먼저 영어를 배우는 일이 그리 간단하지만은 않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말하자면 영어학습이란 인내를 필요로 하는 행위이며, 이는 장기간의 세월을 요하는 문제임을 뜻한다. 엄밀한 의미에서 외국어로서의 영어를 학습하는 사람이라면 살아가면서 평생 늘 영어를 학습해 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제주대 학생들에게 권할 말도 있다. 일부 학생들의 경우 영어를 포기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절대 그러지 말라고 당부하고 싶다. 대학에 들어오기 이전에 이미 영어와 는 담을 쌓았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는가. 19세기 말 20세기 초 이 나라에 들어온 미국 선교사들을 보라. 대학을 갓 졸업하고 이국땅에 들어온 그들의 나이 20대 초·중반이었을 때였지 않은가. 바로 여러분들의 나이 때에 한국어에 관한 아무런 준비 없이 낯선 땅에 와서 각고의 노력 끝에 한국어를 배워가며 선교하지 않았는가. 혹시 여러분이 영어를 이 순간만 처음으로 막 시작한다고 해도 전혀 이상한 일도 아니며, 결코 늦은 것도 아니며, 또 어떤 의미에서는 확실한 목적을 갖고 영어의 세계에 뛰어들게 되는 장점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

대학 기간 4년을 잘 활용하기 바란다. 이 4년이라는 것을 이런 셈법으로 생각해 보면 어떻게 한다. 학기로 치면 8학기요 방학을 8번 맞을 수 있는 기간이 아닌가. 즉 16차례의 적지 않은 기회가 있는 셈이다. 특히나 금년 신입생의 경우 이 소중한 시간을 체계적으로 디자인해서 영어학습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어서 앞서 인용한 영문을 좀 더 볼 필요가 있다. 이에 따르면 영어를 하기 위해서는 3단계가 필요한 것을 역설하고 있는데, 바로 <working>, <practicing>, <using>을 의미한다. 여기서 <working>이란 영어를 배우는 것이고 크게 보면 2년간의 우리식 영어공부에 해당될 것이다. 아마도 학교교육을 통한 우리의 영어는 거의 100퍼센트 이 <working>에만 몰입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working>은 충분히 했다고 본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working>을 하고 있지 않은가. 영어에 관련한 <working>만을 하고 있다면 이는 곧 죽은 영어이다. 의사소통이라는 기능이 전혀 작동되지 못하는 영어, 영어에 관한 지식으로만 만족하는 영어일 뿐이다. 살아있는 영어라면 영어가 반드시 의사소통으로서의 도구로 사용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working>의 단계를 넘어 <practicing>이 필요하고 더 나아가 <using>의 단계까지 가야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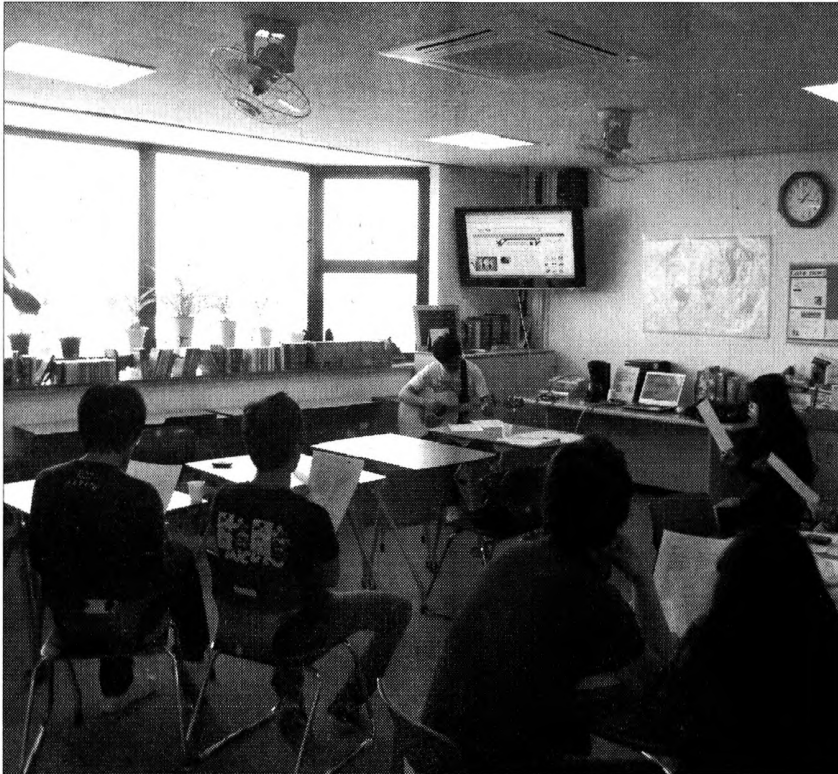
비유컨대 전투조종사가 될 사람이 오직 비행기의 구조와 비행 원리만 공부할 뿐, 한 번도 비행연습을 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실질적인 단독비행을 해보지 못했다면 말이 되겠는가.

마찬가지이다. 날마다 공부만 할 뿐 사용하지 않는 또는 사용하지 못하는 영어란 있을 수 없다.

미국 텍사스 래크랜드 공군기지에 있는 국방언어연구원에서 개발된 중급영어교재 "American Language Course" Volume 2100에 나오는 서문의 일부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The American Language Course is designed for an intensive full-time language training program to provide non-English speaking personnel with sufficient skill in English to enable them to pursue further training in various schools of the Department of Defense for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이 인용문에서 돋보이는 두 개의 어휘가 있는데, 바로 <language training>과 <skill in English>이다. 즉 여기는 훈련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언어학자가 아닌 이상 언어는 공부, 즉 학문의 대상



외국어교육원에서 운영하는 English Cafe.

읽기·쓰기 중심 불균형 바로 잡아

'실력있는 대화'가 영어 마침표

외국어교육원 '영어 광장'으로 자리매김

English Cafe, English Clinic 운영

이 아니고 훈련의 대상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skill>을 획득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영어를 다루기 위한 기술을 배우고 연습하고 사용하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 제주대학교 내에 영어를 배우고 훈련하고 사용할 수 있는 훌륭한 장이 마련되어 있는데 바로 다른 아닌 외국어교육원이다. 학생회관 맞은편에 위치해서 학생들이 이용하기에는 아주 안성맞춤이다. 크게 외국어교육원에서는 학생들의 정규 영어강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덧붙여서 1년에 6차례의 특별 영어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새로 초빙된 원어민 강사들이 주로 맡고 있는 영어회화 강좌가 수준별로 준비되어 있어 우리 학생들이 잘 활용한다면 영어의 기술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확신한다. 특히 영어회화에 가장 이상적인 숫자인 15명을 정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회화연습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 뿐만 아니라 각종 영자신문 사설을 읽고 토론하는 강좌를 비롯해서 영어의 네 가지 기술 영역인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에 따르는 부문별 훈련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으니 학생들의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강좌를 받을 수 있다.

사실 제주대학교 외국어교육원은 단순히 영어를 학습하는 장으로만 국한되지 않음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한 바처럼 배운 영어가 의사소통의 도구로서 작동되지 않는다면 무의미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외국어교육원에는 주지하는 바와 같이 English Cafe가 운영되고 있다. 한마디로 이곳은 <영어의 광장>이 되는 셈이다. 영어로 말하고 영어로 생각하고 영어로 놀고 하는 곳으로서 커피와 영어잡지, 영자신문, 해외여행안내서 등 각종 영어 관련 자료들이 비치되어 있다. 금년 봄부터 운영되고 있는 이곳에는 원어민 영어강사들이 매일 일정한 시간에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다. 그냥 와서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토론을 해도 되고, 책을 뒤적여도 되고, 아니면 커피만 마셔도 된다.

외국어교육원은 제주대학교의 영어센터이기도 하다. 이는 English Clinic이라는 시스템이 작동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한데, 우리 제주대생들은 누구라도 자유롭게 활용할 수가 있다. 여기에 들어와서 자신의 영어능력을 점검해볼 수도 있고, 또한 영어와 관련한 상담도 받을 수 있

다. 물론 영어에 관한 모든 질문도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모든 준비가 되어 있으니 심분 활용하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영어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관해 몇 마디 언급하고자 한다. 이는 학문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고 한국인으로서 학생들에게 오랜 세월 영어를 가르쳐온 사람으로서 그리고 한국사회에서 차지하는 영어의 위상을 현재와 미래적 관점에서 하는 말이다. 영어는 과연 어떤 언어인가. 그리고 과연 영어의 주인은 누구인가. 이런 질문을 먼저 던져본다.

많은 사람들이 영어는 국제어라고 한다. 맞는 말이다. 그리고 조금 공부를 해서 식자층에 드는 사람들은 외국어와 제2언어의 개념을 알고 있고 한국에서의 영어는 제2언어가 아니고 외국어라는 말도 체념할 수 있다. 이도 또한 맞는 말이다. 그런데 적어도 대학교육을 받는 우리들로서는 이제부터 영어를 <우리의 언어>로서 적극적으로 인식하자고 제안하는 바이다. 즉 우리가 모국어로서 한국어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영어도 우리 언어로 삼자는 것이다. 사실 영어의 주인이 따로 있기는 한 것인가. 미국인의 언어인가. 영국인의 언어인가. 영어가 원래 국적과 일치해야 하는 건가. 아니면 특정 인종과 일치해야 하는 건가. 한마디로 이 모두가 아니다. 영어는 영어를 배워서 쓰면 그 누구라도 영어의 주인이 되는 것이지 않은가. 마치도 한국에 들어와 사는 외국인에서 영어를 배워서 잘 쓰고 있을 경우 우리 언어이니 한국어 내용이라고 말 못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우리도 영어를 잘 배워서 쓰기만 하면 영어도 우리의 언어가 되지 말라는 법도 없다. 이런 의미에서 영어를 한국어와 마찬가지로 우리 언어로 삼자는 것이다. 두 개의 언어를 가지고 보다 더 넓은 세계를 상대하고 보다 더 깊은 사색을 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자는 것이다.

영어식 사고흐름 체득해야

사람들은 언어를 시류에 따라 선택하기도 하는데, 적어도 현재로서는 영어의 경우 시류와 상관없이 만민의 의사소통의 도구로 사용될 것이다. 한 때 일본이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할 때에 일본어 학습의 붐이 일어난 적이 있다. 그 후 일본이 좀 뒤쳐지는 대신 중국이 정치경제적 위상에 있어서 세계 제2위의 자리

한권의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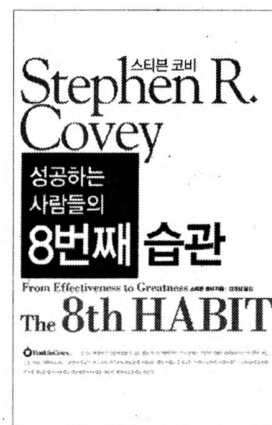
내면의 소리 따를 때 진정한 성공

서경 청탁을 받고 신간 베스트셀러, 스테디 셀러, 고전분야 중 어떤 책을 고를까 고민하였다. 그러다 결국 책꽂이에서 5년 전 출간한 스티븐 코비(Stephen Covey)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8번째 습관'(The 8th habit from effectiveness to greatness)을 골랐다. 굳이 분류하자면 당시에는 베스트셀러였고 현재는 스테디 셀러라 할 수 있겠는데 이 책은 국내에서 1994년 출판된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The 7 habits of highly effective people) 이후 11년 만에 후속 주제로 나온 책이다. 이 책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매너리즘에 빠진 우리들에게 언제나 큰 영감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우선 국내 번역이 '성공하는 사람들'로 나와서 저자의 의도가 정확하게 전달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주지하듯이 스티븐 코비는 리더십 분야의 전문가로서 그가 말하는 성공이란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가 현재 위치에서 리더십을 최대한 발휘하여 영향력(effectiveness)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책 머리에 있는 '리더십은 지위가 아니라 선택이라는 것을 본보기로 통해 보여주는 결순하고 용기 있고 위대한 사람들에게 이책을 바친다'라는 글귀가 이러한 의미를 시사하고 있다.

7가지 습관은 1)자신의 삶을 주도하라, 2)꿈을 생각하며 시작하라, 3)소중한 것을 먼저하라, 4)승승(win-win)을 추구하라, 5)먼저 이해하고 다음에 이해시켜라, 6)시너지를 내라, 그리고 7)심신을 단련하라 이다. 앞의 1,2,3은 개인에 관한 것이고 4,5,6은 대인관계, 마지막 7번은 전체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다. 8번째 습관은 '내면의 소리를 찾고 다른 사람들도 찾도록 고무하라'이다. 내면의 소리는 4가지 요소로부터 나오는데 이것은 재능, 열정, 필요, 양심이다. 재능은 타고난 능력과 강점, 열정은 활력을 불어넣고 신바람을 불러일으키며 동기를 부여하고 영감을 주는 것들을 말한다. 필요한 자기를 포함해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며 양심은 옳은 것을 확신시켜주고 그 실행을 재촉하는 내면의 조율하고 작은 목소리를 뜻한다.

내면의 소리는 매우 추상적이어서 언뜻 와 닿지 않는데 저자는 이에 대해 방글라데시에서 극빈층을 대상으로 소액신용대출 전문 그라민은행 설립자인 무하마드 유누스(Muhammad Yunus)의 예를 들었다. 미국에서 막 박사학위를 받고 고국에 돌아와 상아탑 안에서 학생들에게 고상한 경제이론을 가르쳤던 유누스는 학교밖으로 나오면 굶주린 기아와 온통 떠난 아가 죽기를 기다리는 사람들로만 가득한 현실사이에서 고민을 하였다. 시장에서 그는 한 여성이 아름다운 대나무 의자를 만들고 하루 종일 버는 돈이 2센트(한화로 약 20원)라는 것을 알고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의자의 재료가 되는 대나무 살 돈을 거래하는 사람에게 빌렸는데 그가 의자를 자신이 정한 가격으로 자기에게만 팔아야 한다는 조건을 붙였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녀는 사실상 속박된 노동에 고작 2센트밖에 받지 못하는 것이다. 그는 대나무 재료를 얼마에 사느냐고 물었다. "약 20센트 정도요" 그는 20센트 때문에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자기가 이를 도와주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였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러한 구조로부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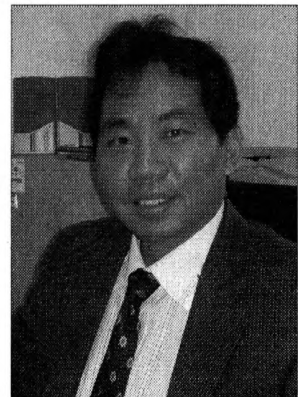
<성공하는사람들의 8번째 습관>

요하임 바우어 지음/ 예코리브르

벗어나 독립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자금인데 문제는 이들이 워낙 영세상인들이라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결국 1983년 10월 2일 그는 이들을 위한 소액대출 은행을 설립하였고 그리핀 은행은 현재 방글라데시에서 1만2천 명이 넘는 직원들이 1,267개 지점을 통해 5만여개 마을을 상대로 영업을 하고 있다. 심지어 결인에게도 돈을 빌려주고 물건을 팔아 구걸을 면하게 한 경우도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대출금을 기반으로 농작물이나 수공업품을 집이나 동네에서 생산하는 독립된 사업가가 되어 경제적으로 안정을 찾게 되었다. 유누스와 그들은 내면의 소리를 찾아 실행에 옮긴 것이다.

21세기를 흔히들 정보 및 지식사회라고 한다. 그러나 저자는 21세기는 지혜의 시대라고 말한다. 과거 산업시대의 중요한 자산은 기계, 자본, 물건이었다. 인간의 4가지 보편적 욕구는 사는 것(신체, 생존), 사랑하는 것(감성, 대인관계), 배우는 것(지성, 성장과 발전), 그리고 유산을 남기는 것(영성, 의미와 기예)이다. 사람은 단지 생존만을 위해 일을 할 수 없다. 훌륭한 리더는 주변 사람들의 이러한 4가지 욕구를 파악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신체지능, 감성지능, 지적지능 그리고 영적지능이 개발되도록 도와주는 사람이다.

사실 책의 두께나 내용으로 보아 5년 전 베스트셀러였다고 하지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책꽂이 후미진 곳에 있지만 쌓여 있는 책일 가능성이 높다. 책의 일부 용어도 현재 상황에 맞게 수정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승승(win-win)을 추구'하는 것은 협상전문가 스투어트 다이아몬드(Stuart Diamond)교수가 말하는 서로 다른 가치를 교환하여 파이를 키우는 것이라는 설명이 더 와 닿는다. 책에 인용된 '사고방식을 바꿀 수 없는 사람은 현실을 바꿀 수 없고 단 한발짝도 전진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글귀는 항상 나에게 새로운 자극을 준다.



서용건
관광경역학과 교수

를 차지하게 되면서 중국어 붐이 일어나고 있는 게 현실이기도 하다. 그러나 언어가 반드시 국력과 비례해서 그 흥망성쇠가 좌우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일본과 중국이 각각 세계 제2위를 때 과연 일본어와 중국어가 이에 비례해서 세계 2위의 인기어였는지를 살펴보면 금방 알 수 있다. 또 예를 들어 향후 중국이 미국을 능가한다고 가정할 경우 과연 중국어가 영어를 제치고 세계어가 될 수 있을

것인가의 질문을 해볼 때에 그렇지 않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다. 영어는 어느 학자의 말대로 그 언어 자체가 갖고 있는 묘한 매력에 있는 언어임에 틀림없다. 미래학자는 아니지만 그 동안 지금까지 산업화와 정보화를 향해 부단히 달려온 한국사회에서 향후에는 이 사회의 지도층에 편입되기 위해 요구되는 여러 요건 중 한 가지가 바로 영어사용의 여부일 것으로 본다.

■ 인터뷰/ 현승탁 글로벌 제주상공인대회 회장

“화합과 상생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글로벌제주를”

세계 각지에서 활동 중인 제주 경제인들이 다시 한자리에 모인다.

‘글로벌 제주상공인, 당신이 제주의 미래입니다.’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건 제2회 글로벌 제주상공인대회(이하 제상대회)가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서귀포 제주롯데호텔에서 열린다. 특히 17일 오후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제주대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상공회의소 공동으로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키로 해 행사의 의미를 더해주고 있다.

전세계 제주 상공인들의 권익을 증진하고 상호협력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열리는 이번 제상대회에는 재외 제주출신 상공인과 제주기업인 등 650여명이 한자리에 모여 제주출신 상공인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략을 모색한다.

특히 도내의 제주상공인을 비롯, 일본 관동 및 관서지역, 중국, 미주, 호주, 러시아, 동남아 등 국외 경제인들이 참석해 제주 경제상공인들과의 상호 경제협력력을 위한 만남의 장이 마련된다.

—두번째 글로벌 제주상공인 대회를 맞는 소감은

“지난 제상대회는 아무도 꿈꿔보지 못했던 국내와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제주출신 상공인들의 화합의 장을 전국 지역상공회의소 최초로 제주상공회의소가 성공적으로 개최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가 있다. 100만 제주인의 실체를 확인한 지난 대회를 통해 제주인의 역량을 모아나가는 창구가 제상대회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다.”

—지난해 제상대회와 달라진 점은

“지난해에 일부 재외동포들은 반신반의하는 분위기가 있었으나, 이번 대회를 준비하면서 지난 대회 때의 소통을 통해 제주인이라는 하나의 구심점이 생겨 재외 상공인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지난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이번 대회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해 지난해 260명보다 100여명이 늘어난 360여명을 교문과 조직위원으로 위촉했다. 특히 제1회 제상대회를 통해 제주인이 하나가 되고 제주경제의 주체는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자각할 수 있었으며, 제주인이라는 연대의식을 바탕으로 실질적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제주경제가 새로운 돌파구를 열수 있다는 큰 자신감을 얻었다.

이번 제2회 제상대회는 지난해 대회에서 채택된 ‘제주의 미래와 경제 활력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바탕으로 그 실천방



오는 17일 개막하는 제2회 글로벌 제주상공인 대회에 이를 앞두고 다가온 가운데 현승탁 제주상공회의소 회장은 도내의 제주경제인의 어울림 마당인 글로벌 제주상공인 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치겠다고 밝혔다.

성공적 제상대회 위해 만반의 준비 제주출신 국내외 기업인들 한자리에 100만 제주인 하나 되는 대회로 성장 일자리창출 등 청년실업 극복 도움

안을 마련하고 지역발전에도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대회로 이끌어내겠다. 아울러 해외, 국내, 제주지역 제주상공인들의 글로벌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한편, 일자리박람회를 통한 고용창출을 비롯하여 제주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화합과 상생의 장으로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 등 주요 행사 내

용을 소개한다면

“최근 고용 상황이 나쁜 점을 감안, 이번 대회를 통해 제주출신 상공인 간의 상호 투자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제주 인재들의 고용창출 효과에 초점을 두겠다. 실제 지역 최대 현안인 일자리 창출에 전력하고자 대회기간 중 제주대학교와 함께 일자리 박람회를 열어 제주의 우수 인력이 국내외의 제주출신 상공인 기업에 채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청년 일자리 창출과 인재교류 및 인재육성을 위한 기반조성을 이번 대회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제주상공인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비즈니스 세션, IT포럼, 공공기관포럼, 제주투자기업포럼, 투자유치설명회 등 분과별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특성화를 갖추고 상공인 간 대화의 장을 폭 넓게 마련하겠다.”

—제주가 국제자유도시, 특별자치도 등 기반은 조성됐지만, 실질적인 외자유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번 대회의 기대효과

“전세계에 퍼져 있는 재외 제주상공인들이 한데 힘을 모아 고향을 지원하는 도차원의 ‘재외동포 투자유치 시스템’ 구축이 절실하다. 고향이 잘살고 못사는 것은 단지 제주도와 도민들의 몫으로만 생각할 수는 없다. 전세계에 퍼져 있는 재외제주동포들이 단결된 힘을 보여주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전세계 100만 제주인들이 은행이나 장롱 속에 모아둔 돈을 제주에 투자한다면 제주는 엄청난 재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지만 투자하고 싶어도 안전한 투자처와 투자창구를 찾지 못해 포기하는 예가 다반사이다. 때문에 제상대회를 계기로 제주상공회의소가 재외동포들을 위한 안전한 투자유치 창구가 되겠다는 의지도 있다. 이번 대회를 통해 앞으로 전세계 제주 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투자유치위원회를 만들어 자치단체와 투자방법을 모색해 나가는 한편 전세계 제주 상공인들과의 유대 강화를 통한 글로벌 투자확대에 힘쓰겠다.”

—이번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도민들께 한마디

“글로벌 제주상공인대회는 제주상공회의소가 중심이 되지만 제주상의 행사로만 생각해서는 안된다. 누군가는 먼저 해야 할 일을 상공회의소가 주축이 돼 개최하는 것이다. 이번 대회는 지역과 계층, 세대를 망라하여 ‘화합과 상생’이라는 큰 틀 안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글로벌 제주의 기틀을 만들자는 뜻도 담겨 있다.

이번 대회가 2회째인 만큼 제상대회의 기틀을 다지고 향후 대회를 100만 제주도민이 참여하는 메가 이벤트로 확대하고, 제주의 역량을 강화하는 자리로 발전시키겠다. 규모와 내용면에서 만족할 만한 대회가 되고자 행사가 마무리되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 도민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정용복 대기자

■ 제상대회 D-2일

글로벌 제주상공인 감동 재현

“제주 발전 돕는 네트워크 만들 것”



지난 4월 29일 제주시 회의실에서 ‘고문 및 조직위원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지역 출범식을 갖고 이번 대회의 성공을 다짐했다.

제주상공회의소는 오는 17일부터 3일간 서귀포 제주롯데호텔에서 열리는 제2회 글로벌 제주상공인 대회(대회장 현승탁 제주상의 회장·조직위원장 송재호 관광개발학과 교수)를 맞아 성공적 대회개최를 위한 막바지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제주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제상대회 개막일이 이를 후로 다가옴에 따라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용박람회, 금융포럼, IT·BT포럼, 투자기업포럼, 국제심포지엄, 비즈니스 자유미팅 등 상공인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결집력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 점검을 마무리했다.

제주상공회의소는 지난 5월 서울 지역 조직위원회 출범식을 개최, 이번 제상대회 설명회를 가진데 이어 6월 부산 등 국내 지역 및 일본 도쿄, 오사카, 중국 등 해외 지역에서 조직위원회를 열고 제2회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홍보와 참여를 당부했다. 이에 앞서 지난 4월에는 조직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조직위원장에 송재호 전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관광개발학과 교수)을 제주대하고 본격적인 준비를 벌여왔다.

이번 대회에는 도내의 제주상공인을 비롯, 일본 관동 및 관서지역, 중국, 미주, 호주, 러시아, 동남아 등 해외기업인들에게 초청장을 발송했으며, 제주도내 기업인 참가도 확정되었다.

정용복 대기자

이번 제상대회는 ‘금융포럼, IT포럼, BT포럼’과 같이 실질적인 비즈니스 교류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을 마련해 지난해 성과를 더욱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준비하고 있다.

금융포럼에서는 신공항 건설과 제주국제금융센터와 관련한 발표와 지정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또 IT포럼에서는 IT산업의 최신기술 소개를 통한 신기술 개발과 품질향상에 관한 논의가 진행된다.

아울러 BT포럼은 제주지역 BT산업의 개황과 향후 전략 그리고 국내외 BT산업 상공인 간 네트워크 구축과 관련한 토론이 이뤄지며, 영비 자니시터 포럼, 비즈니스 자유미팅에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특히 ‘타자가 본 제주도’라는 주제로 제주를 비롯한 국내지역과 일본, 캐나다, 독일, 대만 등 해외의 각지의 인사들이 참여하는 국제심포지엄도 마련된다.

송재호 조직위원장(관광개발학과 교수)은 “이번 대회는 제주 출신 상공인 간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상호 투자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인재 교류 및 육성 기반 조성,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고, 이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면서 “행사 규모와 내용면에서 만족할 만한 대회가 되고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기고 - 이제는 똑똑한(Smart) 농업시대!

농촌진흥청 ‘제 3세대형 유전자원’ 육성 박차 가해

최근 ‘TGIF의 열풍’이 거세다. ‘신나는 금요일(Thanks God It’s Friday)’이란 표현이나 유명 패밀리레스토랑을 떠올리는 이들도 있겠지만 네티즌들에게는 리키는 신조어로 더 익숙해졌다. 바야흐로 글로벌IT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가 주도하는 형국이다. 얼마전 아이폰4 국내 예약이 21만 명을 돌파했다는 소식이 들리더니 국내 기업의 갤럭시, 옵티머스 등에 대한 관심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렇듯 스마트폰의 인기는 가히 폭발적이다. 이는 트위터 가입자 수 급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난 2006년 개설된 트위터는 블로그의 인터페이스와 미니홈페이지의 ‘친구맺기’ 기능, 메신저 기능을 한데 모아놓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이다. 연예인, 정치인 등을 비롯해 각 정부기관, 기업 등에서는 소통 창구로 트위터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21세기 신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농업이아닐로 이러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농촌진흥청은 ‘@love_rda’라는 아이디로 트위터를 개설해 국민들과 소통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농업의 어떤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농촌진흥청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 하는 경우가 많아 우리청에 대한 홍보가 절실히 느껴진다.

농촌진흥청은 우리 농업, 농촌의 발전, 더 나아가 국가 발전을 위한 농업과학기술 연구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소수기관으로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식량과학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 등이 있으며 국립농업과학원의 경우, 농업환경부, 농업공학부, 농업생물부, 농식품자원부, 농업유전자원센터 등 7개 부서에서 국가농업기초기반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기후변화에 따른 돌발병해충 예방 등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안전한 농산물 생산기술, 유기농법, 증감속 등 유해물질의 차단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새로운 농가소득을 창출할 유용곤충 산업화, 잡상산물을 이용한 고부가가치화 및 첨단 신의약 소재개발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우리전통음식의 표준화, 과학화를 통해 세계시장 개척을 위한 기술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농촌진흥청의 대표적인 성과로 1970년대 통일벼 개발을 통한 ‘녹색혁명’을 떠올릴 수 있다. 이는 보릿고개를 넘어 식량의 자급자족의 원동력이 된 중요한 업적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2010년 현재 ‘식물공장’이 있다. 올해 초 남극 세종

기지에 세워져 한 차례 주목받은 바 있으며 지난 7월 12일에는 올 10월 완공을 목표로 ‘식물공장 기공식’이 개최되기도 했다. 빌딩형과 수직형 2개 모델을 선보일 예정으로 남극 세종기지에 설치된 식물공장 보다 상대적으로 부족한 에너지 활용 및 정밀 환경제어 분야에 대한 기술이 보완된 형태가 될 것이다. 식물공장은 과학적 생육상태 관리를 통해 일반 농산물에 비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 1년 365일 날씨가 상관없이, 그리고 태양과 토양 없이도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어 미래 농업의 대안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외에도 곤충을 활용한 기능성 식의약품 개발을 강화하고 있는데 누에의 실크단백질이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비누, 치약, 화장품, 기억력 개선물질 제 등으로 개발되었다. 또한 생체적합성, 투명성, 유연성, 감압저항성 등이 우수하고 기존 종이패치에 비해 고막재생률이 137% 뛰어날 뿐만 아니라 시술이 간단하며, 고막재생기간이 짧다는 특징이 있다. 이에 실크단백질을 이용한 의약품 상품화 연구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2010년 인공시멘트 및 생체막, 2011년 뼈 고정판 및 볼트에 이어 2012년에는 인공치주뼈를 개발할 계획이다.

한편, 최근 세계 각국은 다수성 품종

육종을 위한 유전자원과 종자확보를 위해 ‘출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 특히 생물다양성협약과 FAO 농업식량식물 유전자원 국제조약의 발효로 유전자원에 대한 배타적 권리주장과 보호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식물종자, 마늘과 같은 영양재, 미생물, 가축, 곤충 등을 포함해 약 27만2천여점의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식물자원 보유량은 세계 6위 수준이다. 이를 바탕으로 오는 2017년까지 34만4,000여점을 확보, 세계 5위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이를 바탕으로 질병예방 및 치료물질 발굴을 비롯해 바이오신소재, 바이오에너지, 산업효소, 생물촉매 등을 생산하는 ‘제3세대형 유전자원 활용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효과는 다양하게 확인되고 있다. 북꽃종자 천연물에는 항암효과, 토종고구마량 시나그린에는 항암작용, 들깨 고향량 오메가 지방산에는 두뇌활동 및 기억력 향상, 누에 고치는 인공고막, 인공뼈, 인체보형물로, 검은콩 등 천연물질 아토피피에는 면역력 증진 및 아토피 개선, 콩의 고향량 이노시톨에는 당뇨치료, 고향량 안토시아닌에는 노화방지, 옥수수수염 고향량 메이션에는 항산화 및 항암작용의 효과가 있다. 이외에도 올 10월까지 ‘토종종자 기증 캠페인’을



식물공장은 IT·NT·BT 등 최첨단 융복합 기술이 망라된 자동생산시스템으로, 기후변화에 관계없이 365일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 ‘식물공장 실험실’

전개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이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하고 있다. 최근 농업에 대한 관심은 귀농, 도시농업, 로컬푸드 등 다양해지고 있다. 이에 농촌진흥청은 TGIF와 같은 국민과의 소통창구를 마련함으로써 미래 농업을 대비한 힌트를 얻어가고 있다. 특히, 농촌진흥청이 마련한 ‘도시민들을 위한 야간 귀농교육’은 열띤 호응으로 마무리되었고 최근에는 ‘엘리트 귀농대학’이 개설되어 수업이 진행 중이다. 귀농 역시 체계적인 준비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이외에도 도시와 농촌이 공존할 수 있는 로컬푸드운동, 도시농업 등의

문제도 고민해 봐야 할 문제이다. 농업이 우리 젊은이들에게 도전해 볼 만한 매력적인 산업이 되기를 바란다. 제주도가 ‘올레’를 통해 세계적으로 가고 싶고 살고 싶은 지역이 되어 가고 있듯이 농업 분야에서도 제주 지역민의 자원을 바탕으로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기술을 선보일 수 있다. 이에 제주지역의 리더로 성장할 여러분들의 역할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여러분들의 패기 넘치는 도전을 기대해 본다.

윤순강(농학과 78학번)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기획조정과장

■ 무론유설 ■

인간의 진화 = 표현의 진화

강의를 잘 하는 교수는 학생에게 인기가 있다. 강의를 잘 받는 학생도 교수에게 인기가 있다. 이해하고 흥미가 있다는 표현을 잘 하기 때문이다.

신문에 글을 잘 쓰는 사람도 인기가 있다. 그래서 원고지 1장에 20만원이 넘는 원고료도 받고 독자의 생각을 이끌어가기도 한다.

손석희 아나운서는 토론을 재미있게 만든 사람도 인기가 있다. '시선집중'의 핵심질문과 풍부한 지식과 질문의 마무리는 청취자의 채널 선택권을 빼앗아 간다. 맛장구의 1인자도 있다. '우리는 라디오 시대'의 최유라는 오후 4시가 되면 모두를 미소 짓게 하는 맛장구의 1인자이다.

스티브 잡스는 장사꾼적인 표현의 1인자이다. iPod를 세상에 내보일 때 청바지 동전주머니에서 꺼냈다. 노트북을 개발했을 때는 노란 서류봉투에서 노트북을 꺼냈다. 더 이상 가볍고 작다는 설명이 필요 없는 표현이다. iPhone이나 iPad를 출시할 때도 세계의 이목을 집중 받았다. 그래서 스티브



현해남
생물산업학부 교수

잡스식 프레젠테이션 심계명도 있다.

어려운 학술적인 내용도 재미있고 흥미롭게 표현할 수 있다. 미국의 부통령이었던 엘고어가 2007년에 노벨평화상을 공동으로 수상하게 된 계기는 불편한 진실(An Inconvenient Truth) 덕분이다. 불편한 진실은 딱딱한 기후변화와 관련된 학술조사 결과를 논문을 발표하는 형식으로 만든 영화인 데 아카데미상도 받았다. 주제가 무엇인지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표현하는가가 중요하다.

혹자는 인간의 진화과정은 표현의 진화과정이라고 한다. 표현에서 이기는 생물만 살아남았기 때문이다. 인간의 조상인 침팬지, 원숭이와 인간의 차이는 수 백 만 년 전에 말로 표현하는 능력의 차이에서 왔다고 한다.

호모사피엔스가 네안데르탈인과 경쟁에서 이긴 것도 말로 표현하는 능력의 차이에서 기인한다고 주장한다. 네안데르탈인은 모음을 발음할 수 있는 턱의 구조를 갖추지 못했지만 모음을 잘 표현하는 호모사피엔스가 경쟁에서 살아남았다는 것이 정설이다.

2009년 11월에 Nature에 언어 표현과 관련된 중요한 논문이 발표되었다. 사람의 언어능력을 연구하는 Daniel Geschwind 박사가 인간의 언어능력을 변화시킨 FOXP2라는 유전자를 찾은 것이다. 결국 FOXP2 유전자에 의해 침팬지, 원숭이와 네안데르탈인의 차이, 네안데르탈인과 호모사피엔스의 차이를 설명하였다.

우리 대학에도 많은 교수님들이 표현하는가가 중요하다.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이지만 글이라는 매체를 통해 제주 지역 사회에 제주대학이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제주지역의 오피니언리더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다.

신문의 경쟁력도 표현의 차이에서 온다. 같은 기사도 헤드라인, 문장의 길이, 문장의 음율, 단어의 배열, 문장의 박자에 의해 유명 중앙지와 지방지의 차이가 크다.

코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동물은 코끼리이다. 자신의 생각을 말과 글로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동물은 사람이다. 대학에 다닐 때는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는가가 중요하다. 사회에 나가서는 그 지식을 어떻게 잘 표현하는가가 우리 학생들의 앞길을 좌우할 것이다.

글이든 말이든 발표든 표현을 잘 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내놓는 가치 있는 '명함'이다. 우리 대학 학생들도 표현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좋은 명함'을 갖기를 기대한다.

■ 신입교수 릴레이 인터뷰 - 정철(관광경영학과 · 관광마케팅 전공)

“관광학연구 최적 조건... 학생은 적극성 갖추길”

“제주는 많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곳이에요”

9월 1일자로 관광경영학과 교수가 된 정철(관광마케팅 전공) 교수의 말이다. 제주의 매력에 빠져 제주를 사랑하게 된 정 교수를 만났다.

그가 관광학을 전공하게 된 것은 자신 스스로가 여행을 좋아하고 즐겼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여행을 통해 일상에서 벗어나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삶의 재충전 역할을 하는 관광이 그를 매료시킨 것이다.

“삶이 힘들고 고단할 때 사람들은 여행을 떠나죠. 그렇게 여행을 갔다오면 다시 삶의 활력을 되찾고 열심히 일을 하잖아요. 그런 모습이 참 신기했어요. 사람들이 왜 관광을 다니고 어떤 곳을 관광하는지 궁금했죠.”

제주도 출신도 아닌 그가 제주대로 오게 된 것은 우연한 기회에 서었다. 플로리다에서 박사 과정을 끝내고 한국에 들어온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제주대 BK21사업단의 박사연구원 모집 공고였다.

“제가 귀국한 순간 제주대에서 박사연구원을 모집하고 있더라고요. 딱 그 모집 공고가 눈에 들어

왔죠. 그렇게 1년을 연구원 생활을 하면서 제주의 매력에 흠뻑 빠졌죠.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관광지를 찾기 위해서 멀리 나가다 되죠. 하지만 제주도는 발을 뻗기만 하면 사람이 관광지예요. 연구하기에는 최적의 장소인 거죠.”

그는 제주의 잠재력을 높게 평가했다. 박사과정을 플로리다대학에서 마친 그는 제주도가 잘 알려져 있지 않아서인지 플로리다에 못지 않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제가 플로리다에서 박사과정을 다녔지만 플로리다보다 매력적인 곳이 제주도예요. 제주도는 한라산을 비롯해 많은 산과 오름들이 있고 사람이 바다여서 어디를 가도 바다와 산이 조화를 이루고 있죠. 제주도가 아니라면 쉽게 볼 수 없는 환경이죠.”

그는 최근 유행하는 웰빙형 관광지 제주도와 잘 어울린다고 말한다. 올레길을 비롯한 걷기관광은 물론 골프, 승마, 요트, 스쿠버 다이빙 등 다양한 스포츠를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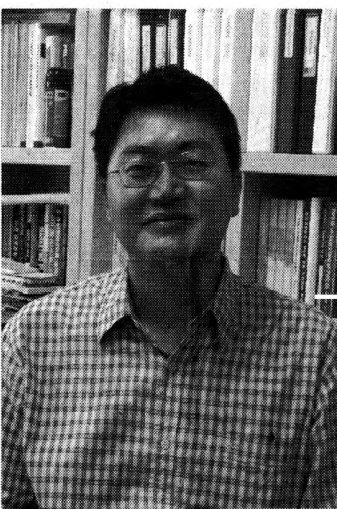
“제주도 바다경관이 그려지고 뒤로는 멋진 오름이나 산이 자리잡

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 올레길이 유명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즐기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사람이 바다에다 바람도 많이 불어서 요트를 타기에도 좋은 환경이죠. 또 옛날부터 말을 키워왔던 곳이고 경마 산업이 이뤄지고 있어서 승마 산업도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죠.”

그는 제주의 환경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도 많은 매력을 느낀다고 말한다. 성격도 순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학생들이 많아서다. 그러나 아쉬운 점도 있다. 학생들이 적극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제주도 학생들은 성격은 착하고 노력할 줄도 아는데 적극성이 부족해요. 저는 주마다 조별로 배워온 이론을 직접 적용시키는 수업을 해요. 그런데 일부학생들은 조 활동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물론 개인의 성격차일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적극성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조 활동이 어렵다면 저한테 찾아와서 도와달라는 적극성도 좋아요. 수업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적극적인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서도 잘 헤쳐 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정철(관광경영학과) 전임강사

그는 관광경영학과가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학과가 될 수 있도록 일조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아직 이름이 알려지지 못했을 뿐 어느 대학보다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아직 알려지지 못한 제주와 제주대가 가지고 있는 매력을 마음껏 뽐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의 말에 제주와 제주대의 밝은 앞날을 기대한다.

강보배 기자

■ 독자기고 ■

“겉모습 편견 버리고 내면의 아름다움 가꾸자”

2009년 3월 제주대학교에 첫 입학했을 때 가장 먼저 들었던 걱정은 '친구를 어떻게 사귄다'라는 걱정이었다.

내 성격은 사교성이 뛰어나지도 않거나 더군다나 전문계 고등학교에서 남자라고는 나 혼자만 입학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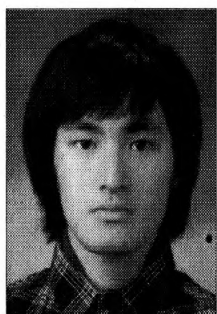
3년간 정들었던 친구들과 헤어지고 황량한 사막에 혼자 던져진 것 같은 느낌이었다. 더군다나 제주대학교의 드넓은 잔디밭은 나의 쓸쓸함을 더하게 했다.

나는 입학 초기에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다.

“재 좀 봐, 키가 엄청 작네? 그래도 공부 좀 하게 생겼다.”

생판 모르는 여학생 두 명이 일면식도 없는 나에게 그런 말을 던지는 것이다.

나는 “많은 여학생들이 나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고대웅 사회학과 2

까?” 또는 “나는 키가 작은 여학생과 사귀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었다. 결국 그 말이 내게 우울함을 덧붙인 셈이다. 그 이후부터 나의 키는 사람을 사귀어 있어서 애로사항이겠구나 하고 여겼다.

내가 겪은 경험과 유사한 상황을 맞이한 신입생도 있을 것이고,

그보다 더 심한 상황에 처한 신입생 또는 복학생, 재학생도 있을 것이다.

소위 멋있고 잘 처러있는 학생들끼리는 어울려 다니면서 그렇지 못한 학생은 소외된다. 그리고 당연히 어떤 사람의 외모 또는 처지를 손가락질하며 비난하는 자는 당연히 이로 하여금 움츠러들게 만든다.

사람을 사귀는 것은 어떤 것인가, 나는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마음의 교감을 나누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사람과 친해져서 학교생활에 대한 고민 상담도 나누고, 힘들었던 이야기 또는 재밌었던 이야기를 모두 나누며 힘들 때나 즐거울 때 함께 생각을 나누는 사람, 그 존재가 친구이다.

하지만 겉모습 또는 처지를 보고 판단하여 친구를 사귀다면 무

슨 일이 일어날까? 자신의 학교생활에 대한 고민을 진정으로 털어놓을 사람 하나 없으며 고민을 털어놓거나 살아가는 데 있어 충고 하나 해줄 사람이 주변에 없을 것이다.

그것을 대신하여 주위를 채우는 것은 오늘의 패션, 옷값, 외모판단에 대한 생각들일 것이다. 당연히도 소위 잘나보여서 사귀 친구에게 많은 것을 바라기에는 무리이다.

우리는 이러한 조건을 근거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 이러한 판단에 근거한 생각을 지워버려야 한다. 개인에게 있어서, 대학교는 지식 획득 그리고 사고능력 발전을 위한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목적에 어울리는 대학생이어야 할 것이며 인간관계의 본질을 깨닫는 대학생이어야 한다.

사설

가치 있는 화답

재일제주인 1세인 김창인(金昌仁) 오사카 남해회관 회장. 1년 반 전, 재일제주인센터 건립기금으로 35억원을 기부한 이후 얼마 전 또 다시 우리대학에 100억원의 거금을 쾌척했다. 그는 자신의 소박한 신념을 아름다운 실천으로 옮기면서 가치있게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었다.

그는 기부를 통해서 자신이 평소 체할하여 완성한 실천철학을 우리 젊은이들에게 전하고 후손들이 그 철학 속에 함축된 진정한 의미를 실천하도록 하여 밝은 사회를 이룰 수 있도록 할 것과,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역경을 헤치면서 일본 땅에서 자신들의 삶을 진지하게 일구어가는 재일제주인들에 대한 연구기금으로 활용하도록 하였다. 기부가 없다 라도 우리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자신의 사재를 털면서 까지 그 일을 하는 것은 그의 눈으로 볼 때, 우리사회가 심각한 병폐를 안고 있는 나태 속에 깊숙이 빠져있음을 의미하는 반증일 것이다.

그의 실천철학의 메시지는 간단·명료하다. ‘바르게 사는 일’, ‘약속을 지키는 일’, ‘인간의 도리를 다하는 일’이다. 이를 실천하는 것이 자신을 위하고 가정과 사회와 국가를 위하는 것이라는 신념은 자신의 어려운 인생역정 속에서 응축된 산물이었다. 16살의 어린나이에 단신으로 일본에 건너가 온갖 고된 일을 다 하면서 성공한 기업인으로 자리매김하기까지의 땀과 노력, 고통과 희망이 고스란히 그의 삶의 철학에 녹아 들어있다.

그의 또 하나의 바람은 재일제주인에 대한 연구의 활성화이다. 어려웠던 시절, 재일제

주인들은 제주도와 제주대학교에 뜻 있는 기부를 하였고, 오늘날의 눈부신 발전을 이루는 데에는 이들의 헌신적인 힘이 크게 작용했음을 부정하지 못할 것이다. 기부자들은 모두 큰 기업가가 아니었다. 오로지, 어렵고 뜻사는 고향을 발전시키는데 일조한다는 순수한 생각밖에 없었다. 그런 숭고한 가치관을 지닌 그들의 삶과 정신을 조명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였건만 아직까지 그들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얼마 전 설립된 재일제주인센터가 김창인 회장의 기부정신을 실천하는 중심역할을 맡게 되겠지만, 이는 센터 혼자만이 해야 할 일이 아닌 우리 모두가 함께 해 나가야 할 몫이다. 기부와 참된 의미를 되새기면서 진정성을 가지고 그의 뜻을 실천에 옮겨 나가야 한다. 젊은이들이 바르고 용기있는 삶을 펼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여 교육하고, 재일제주인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그들과의 진정한 소통의 장을 만들어 이방인으로서의 재일제주인이 아닌, 제주인으로서의 재일제주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김회장은 우리들에게 ‘나눔의 정신’을 보여 주었다. ‘가치있는 삶’이란 무엇인지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젊은이와 우리 사회에 대한 ‘진정한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이제 우리들이 그가 추구하는 ‘가치있는 삶’에 대한 ‘가치있는 화답’을 해야 할 차례이다. 그것은 바로 우리대학이, 아니 우리사회가 해야 할 일을 그와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진정한 실천’을 통해 이루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 미디어 세상읽기 ■

지방신문 경영 위기의 그늘

지난 8월 중순 제주시 낮 최고 기온이 35도를 오르내리는 날, 업무차 방문한 한 지방신문사에서 다소 놀랄 일을 겪었다. 이날 한창 기사마감 중인 편집국은 물론 논설위원실, 전무이사실 모두 에어컨이 가동되지 않았다. 신문사 내부가 몹시 무더웠지만, 선풍기에 의지한 채 업무에 열중이었다. 한여름 무더위에 에어컨을 틀어놓고 쾌적한 환경에서 일을 해야 함에도 전기요금 부담 때문에 에어컨을 안들었던 것이다. 다른 언론사의 한 기자는 “6.2 지방선거 당시 반짝했던 광고 시장이 요즘은 세가 말라버렸다”면서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지역 광고 시장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위기상황을 설명했다.

현재 제주지역에는 5개 지방일간지가 있다. 아울러 5개 주간지 및 특수지, 18개의 인터넷신문이 있다. 이렇다 보니 정상적인 신문 경영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제 살 깎아먹기식의 과당 경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이런 와중에서 신문은 시장에서 퇴출되지 않고, 오히려 그 수가 점점 증가하는 수수께끼 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지방 신문의 경영은 주요 수입이 광고수입과 판매수입이라는 점에서 지역 경제 동향에 의해 큰 영향을 받는다. 경기가 호황일 경우 상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매출 확대를 위해 광고비의 규모를 늘린다. 이와 반대로 불황일 경우 비용축소를 위해서 불요불급한 분야부터 줄이기 시작하는데, 통상 광고비가 우선 감축대상이 된다.

제주는 특히 지역경제가 영세한 이유로 광고수입에서 판공서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물론 판공서 중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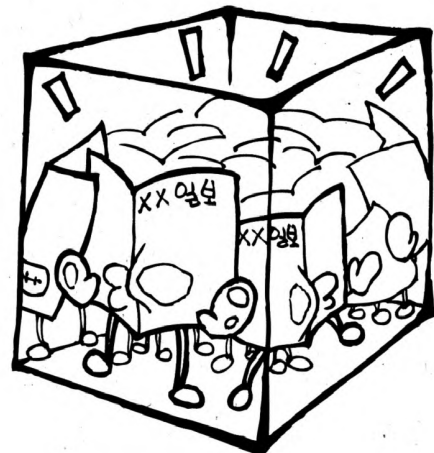
의 광고수입은 시민세금을 다시 언론사에 집중시킨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하지만 2006년 7월부터 4개 자치시군에서 제주특별자치도로 통합하면서 판공서 광고마저 크게 줄어들었다.

신문을 발행하는 신문사 조직의 운영과 성장에 있어서 경영상의 안정은 절대적인 측면이 있다. 경영이 취약할 경우 신문사 존립이 위협받는다는 점에서 신문의 공익적 역할 역시 제한될 수밖에 없다. 결국 행정 권력의 통제와 기업이 요구하는 사적 요구에 대해 거부하기 어렵게 된다.

또한 지역의 인구수나 산업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지방신문의 과당 경쟁은 구조적 취약성을 야기하여 판매여건의 악화, 광고유치의 출혈경쟁, 경영압박 등의 악순환을 초래한다. 결과적으로 지방신문이 만성적인 경영적자 속에서 신문 보도 내용의 획일화를 보여주는 질적 저하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그러므로 지역신문이 내포하고 있는 경영문제의 해결 없이는 지방신문의 발전 또한 요원하다고 할 수 있다.

이제 지방신문사들은 자신들의 미래에 대해 스스로 고심하고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 이렇 때일수록 신문사 규모를 더욱 축소해 적절한 시장 범위를 결정된 뒤 편집·제작 방향을 근본적으로 재조정해야 한다. 특히 전국지와 다른 생활밀착 기사와 지역성이 풍부한 기획기사에 승부수를 걸어야 한다. 뉴스 가치의 기준인 시의성, 저명성, 근접성, 중요성, 인간적 흥미 중 지방신문이 전국지에 비해 우세할 수 있는 것은 근접성 외에는 없기 때문이다.

정용복 대기자



독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독자 여러분들이 직접 쓴 글을 오피니언면에 게재하고, 독자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학교에 바라는 점이나 제주대신문을 읽고 난 후 느낀 점 등 다양한 주제의 글을 보내주시면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 이름, 학과 및 계좌번호를 꼭 기입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의: 754-2279, press@jejunu.ac.kr
홈페이지 http://news.jejunu.ac.kr

